

노년의 장소와 장소상실:

일본 농산촌 지역에서의 Aging in Place 실천과 장소감각의 경험*

김희경**

본 연구에서는 AIP(Aging in Place)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NPO 법인, 고령자 및 이웃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갖고 있는 상이한 장소개념 및 장소감각(sense of place)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사자인 노인들이 소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일본 농산촌 지역 사례를 통해 규명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장소 및 장소상실(placelessness)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노인들의 장소감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제시하는 장소가 노인들의 장소감각과 얼마나 상이한 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고령자 생활협동조합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에서 제3의 장소를 제시하려는 시도와 한계에 대해서 논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AIP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소상실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노인들의 변화하는 장소감각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개념〉: 에이징 인 플레이스, 장소감각, 장소상실, 지역사회, 노년, 고령화, 일본

*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김희경 2015)에서 사용된 자료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의 초고는 〈2015년 한국문화인류학 정기학술대회〉 및 〈2016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사회와 문화 연구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초고에 대한 비평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과 초고 작성에 도움을 주신 김혜경, 정현목, 조수미, 조아라, 지은숙 선생님 및 본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08-362-B00006).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박사후연구원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AIP(aging in place: 이하 AIP로 표기)는 노년 주거 및 복지정책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Iecovich 2014). AIP의 사전적 의미는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정용문 2013)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AIP를 “나이, 소득, 능력의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집 또는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사는 상태”로 보다 광범하게 정의하고 있다.¹⁾ 이는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 혹은 공동체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던 재가복지사업을 지역의 단위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실제로, AIP를 보장해 주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영주 2006; Kaup 2009; 飯島勝矢 2012; 大淵修一 2014; McCunn and Gifford 2014; Singelenberg, Stolarz, and McCall 2014).

하지만, AIP 이념에 근거한 논의들 혹은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최근의 노인복지정책에서 AIP 이념은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노인들을 집에서 보호하는 게 노인들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정치경제적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Minkler 1996; Chappell, Dlitt, Hollander, Miller, and McWilliam 2004; 조아라 2013). 특히, 조아라(2013)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추진되는 AIP는 고령자의 선택을 중시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됨에 따라 고령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 WHO, “Healthy Places Terminology: Aging in Place,” <http://www.cdc.gov/healthyplaces/terminology.htm> 2016년 4월 1일 접속.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노인들의 관점에서 AIP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들은 AIP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Keeling 1999; Frank 2002; Means 2007; Wiles, Leibing, Guberman, Reeve, and Allen 2011; Löfqvist, Granbom, Himmelsbach, Iwarsson, Oswald, and Haak 2013; Bacsu, Jeffery, Abonyi, Johnson, Novik, Martz, and Oosman 2014; Hillcoat-Nalletamby and Ogg 2014). 이는 노인들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장소와 정책 및 복지담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노인들의 장소 및 장소상실(placelessness)²⁾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제시하는 장소가 노인들의 장소와 얼마나 상이한 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고령자 생활협동조합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에서 제3의 장소를 제시하려는 시도와 한계에 대해서 논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AIP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갖고 있는 상이한 장소개념 및 장소감각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과 정작 노인들의 장소감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의 농산촌 지역인 나가노현(長野県) 사쿠시(佐久市)에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전조사를 행했으며,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5년 1월과 2월에 7일간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나가노현 사쿠시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40.2%, 논밭 및 들판 27.1%, 주택 5.7%, 기타 27.0%로 기본적으로 농산촌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8.1%이다(佐久市 2014).

2) 통상, 장소상실(placelessness)은 장소가 상업적 개발과정에서 개성을 박탈당해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경관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고유한 장소감각(sense of place)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Gregory, Johnston, Pratt, Watts, and Whatmore 2011).

나가노현 사쿠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최근 일본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주로 도시 지역 노인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³⁾ 지역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조아라 2013). 또한, 농촌 지역은 도심부에 비해 파편화가 덜 진행되었으며, 장소에 대한 애착 역시 강하게 남아 있는 정적인 공간으로 재현되어온 경향이 있다 (Escobar 2001). 따라서 나가노현 사쿠시의 사례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AIP 이념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연구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지명 및 노인들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실제 지명을 사용할 경우 일반화된 표기방식에 따라 일본어 문자나 한자를 병기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인터뷰를 실시하던 당시의 연령을 기재하였다.

2. 장소 및 장소감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상 AIP를 옹호하고 찬성하는 논저들에서 장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Cutchin 2003). 일부 논의에서는 노인들의 집 혹은 시설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AIP를 재가(의료)복지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김영주 2006; 越田明子 2011; 阿部勉·大沼剛 2014), 일부에서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communitiy)를 지칭하기도 한다 (Joseph and Chalmers 1995; Scharlach, Graham, and Lehning 2011).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집 또는 근린생활공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大橋寿

3) 총무성(総務省 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자가주택 비율은 61.7%이고, 비목조주택은 42.2%, 공동주택 42.4%인데 반해, 나가노현(長野県 2013)의 자가주택 비율은 73.0%, 비목조주택 21.9%, 공동주택 20.9%이다. 특히 나가노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자가주택 비율은 92.1%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7.8%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도심지역에서는 노인들의 주거를 어떻게 확보해줄 것인가가 문제인 반면, 나가노현과 같은 농산촌지역에서는 오히려 빈 집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기존 주택을 어떻게 수리해서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처럼 도시 지역과 농산촌 지역에서의 주거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美子·加藤仁美 2014; 鈴木幾多郎 2014), 정책 담론에서는 주로 노인들의 집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뜻하고 있다. 이처럼, AIP 담론에서 장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인문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지역성에 기초한 생활 세계”(정현목 2013: 116)로 규정되고 있었다.

장소를 ‘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AIP 담론에서 노인들의 장소감각은 장소에 정착된 고정된 감정으로 전제되고 있다(田原裕子·神谷浩夫 2002; 井出政芳·山本玲子·宇野智江·鈴木祥子·伊藤優子·早川富博·宮治眞 2014). 특히, 노인들의 경우, 지금까지 살아왔던 장소에 대한 애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Rubinstein and Parmelee 1992). 그래서 노인들이 장소에 대해 갖고 있는 ‘남다른’ 애착은 AIP 이념을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소경험과 장소감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성(locality)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론화하면서 사회학 및 인류학자들은 장소는 정적이며, 안정적인 것이 아닌 불연속적이며, 그곳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수의 목소리(multivocal)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Appadurai 1988; Rodman 1992). 또한, 경계가 침식되고, 디아스포라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소감각이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Gupta and Ferguson 1992). 따라서 유의미한 장소는 사라지고, 비장소(non-place)가 확장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정현목 2013).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탈영토화가 진전되고, 장소가 상실되고 있는 상황으로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장소에 기반한 실천들에 주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Geertz 1996). 아무리 장소가 다양한 정치경제적 힘들이 교차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특정한 장소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소에 대한 의미를 끌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Feld

and Basso 1996; 김현경 2015). 따라서 지금의 과업은 탈영토화가 진전되고, 글로벌한 상황에서 장소를 사수하려는 실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Rodman 1992; Escobar 2001).

이상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의 장소나 장소감각을 당연한 어떤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상호작용 속에서 장소 및 장소감각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장소를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장소를 포기하려는 노인들의 실천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장소상실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목하겠다.

3. 노인들의 장소와 장소상실의 경험

1) 노인들의 장소경험 및 AIP 실천양상

본 절에서는 노인들의 장소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겠다. 장소의 본질에 주목한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장소란 위치나 경관과 같은 물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는 실체가 아니다. 장소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고 관련을 맺음으로써 창조되는 다층적 경험이자 경관(Ingold 1993)이기 때문에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곧 장소이고, 장소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렐프 2005: 77-88)인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쿠지역 노인들의 장소경험의 핵심을 이루는 집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겠다.

사쿠지역의 많은 노인들은 배우자와 만나 세운 집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리고 배우자가 사별한 이후에도 노인들은 계속해서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때문에, 방문을 해보면, 분가를 한 자녀들이나 사별한 배우자의 물건들을 치우지 않은 채, 오래된 물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았다. 일례로 <사진 1>은 주요



〈사진 1〉 홀로 살고 있는 마나베씨(여, 70세)의 부엌

정보제공자인 마나베씨(여, 70세)의 집 부엌이다. 마나베씨는 남편과 2년 전 사별했고, 아들과 딸은 결혼 후 분가해서 외지에 살고있다. 마나베씨는 남편 사별 후 쪽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남편 및 자식들의 짐을 치우지 않고 살고 있었다.

보통 사쿠지역 노인들의 아침은 불단으로 자리를 옮긴 가족들과 조상들을 위해 밥 또는 물을 올리는 일로 시작되었다. 가끔, 자신이 먹는 빵을 밥 대신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서 가지고 온 과일이나 과자도 제일 먼저 불단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저녁에는 물을 버리고 불단의 문을 닫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인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불단을 관리하는 이유는 부처가 된 가족들의 혼령이 머무는 장소이자 멀지 않아 자신이 가게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mith 1999; 야나기타 구니오 2016). 이처럼, 겉에서 보면, 모두가 떠난 빈 공간에 노인 혼자 텅그러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인들에게는 빈 집이 아닌, 한참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했던 자식들과 함께 생활했던 추억이 남아 있는 공간이자, 존재의 양식은 변하였지만 여전히 자신 주변에서 맴도는 가족들의 혼령을 보살피야 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난 빈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건들, 기억들 그리고 의무들은 노인들로 하여금 “아직까지는 현역(現役)”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 사쿠지역 노인들은 집 주변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낮에 일을 하기 어려운 여름에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텃밭을 관리했다. 노인들은 수확한 작물들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보내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오래된 가전제품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절약정신이 몸에 밴 탓도 있지만, 새로운 기계를 사게 되면 작동방법을 다시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그걸 옆에서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의 도움을 받아 노인들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행했던 과업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정진웅 2000).

가족이나 공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적인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존재들은 바로 이웃들이었다. 노인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공적인 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들과 상호돌봄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쿠지역 노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웃들과 차 마시는 자리를 갖곤 했다. 연구자 역시 종종 차 마시는 자리를 통해 노인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차를 마시고 있거나,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지나다가 들렀다는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차 마시는 자리에 합류하곤 했다.

노인들은 차 마시는 자리를 통해 외로운 마음도 달래고 생활상의 어려움들도 해결해나가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채 혼자 살고 있는 여성 노인들에게 차를 같이 마실 수 있는 친구들은 “국가보다 나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전직 보건사이기도 했던 90세의 토코씨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친구네 집에 방문하여 차를 마시고 있었다. 토코씨는 “(시간당으로 서

비스 요금을 부여하고, 가사 서비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호보험과 달리)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매주 방문해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몸이 아프면 빨래도 대신 해주니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잘 지내는지 안부도 확인하고 필요한 것도 다 해결해주니 말이야?”라며 싱긋 웃기도 했다.

실제로 차 마시는 자리를 통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하거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길 때, 차 마시는 자리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곤 했다. 차를 마시는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할 때는 쓰레기도 버려 주고, 4) 빨래 등 소소한 집안일도 대신 해 줬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기계를 고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차를 얻어 타야 할 경우에 친구들의 남편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 또한, 혼자 남겨진 남성노인들 역시 친구들의 부인에게서 요리한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고, 필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구할 때 이웃들의 인맥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사쿠지역 노인들은 지역의 소규모 상점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능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남편이 죽은 이후, 혼자서 살고 있는 코즈씨(여, 72세)의 경우, 시가지에 들어선 대형 판매점이 아닌 동네에 있는 소규모 상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보다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싼 대형 판매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코즈씨는 “지역에 있는 이런 작은 가게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그것은 일종의 “인간관계”라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코즈씨 역시 디지털 텔레비전을 새로 사야 했는데, 그녀는 늘 거래했던 가게에 전화를 했다. 가게 주인은 코즈

4) 사쿠지역에서는 매달 지정된 날과 시간,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고 있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한 달에 여덟 번 정도 버릴 수 있었지만, 비닐류를 비롯해, 매립이 가능한 쓰레기, 캔·의류·가방, 신문지와 같은 폐휴지, 플라스틱류, 병은 한 달에 오직 한 번만 버릴 수 있었다. 게다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간도 오전 6시 반에서 오전 7시 반으로 오직 한 시간뿐이었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도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게 쉽지 않아서 쓰레기를 그냥 쌓아두고 지내는 집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씨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적당한 가격의 물건을 골라줬을 뿐 아니라 코즈씨의 집에 직접 들러 설치도 해주고, 안테나 같은 것도 전부 손을 봐주었다고 했다. 시가지에 있는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좀 더 싸게 물건을 구입했을지는 몰라도,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들을 손수 해결했어야 했을 거라며, 코즈씨는 “인간관계는 그래서 참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점이나 도서관을 근방에서 찾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서점 직원들은 노인들이 읽고 싶다고 주문한 책이나 직원이 추천하는 책을 가지고 노인들의 집에 들르곤 했다. 이러한 상인들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노인들은 능동적인 소비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상인들과 소규모 상점을 지켜내기 위한 실천들을 행하고 있었다.

사쿠지역 노인들의 장소경험에서 집과 지역사회 내 인간관계는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과 지역사회는 자신과 가족의 역사가 남아있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노인들은 지역 내 상인들 및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노인들과 상호돌봄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망은 노인들을 자립적인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정부 및 학계 담론에서 재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AIP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소경험이나 장소감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노인들의 장소상실 경험을 중점적으로 논하겠다.

2) 장소상실의 경험 및 장소감각의 변화

대부분의 사쿠지역 고령자들은 집 혹은 지역사회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쿠지역 노인들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상 죽음을 맞이할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바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었다. 즉, 가족 및 이웃, 지역사회 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강상태를 죽기 직전까지 유지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른바 “다다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⁵⁾는 소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⁶⁾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자녀들이 모두 떠난 집에 지금처럼 혼자 남아있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불단을 관리하는 관습도 자신들이 죽으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역시 노인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일부 노인들은 “자신들이 죽더라도 반드시 불단을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장에 써 놓기도 했다.

또한 친구들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들이 의도한 것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노인들은 가족 이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을 자신의 진짜 가족들에게는 소개하지 않았다. 연구자의 주요정보제공자인 마나베씨(여, 70세)의 아들이 도쿄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결혼식은 통상 사전에 초대 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부조금도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상을 내야 했고, 좌석도 모두 정해져 있다. 연구자를 비롯해 마나베씨의 가장 친한 친

-
- 5) 한국 노인들은 평온한 죽음을 희구하며 “자는 잠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에 서는 같은 맥락에서 “다다미 위에서 죽고 싶다(畳の上で死にたい)”라는 표현이 일반화 되어 있다.
- 6) 가족과 동거비용 사쿠시 고령자복지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사쿠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25,979명 중 혼자 지내는 노인은 3,107명으로 총 12.0%에 달한다(1975년 기준으로는 5.7%에 불과했음). 또한, 사쿠시의 가족유형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1965년에는 61.8%였던 핵가족 세대 비율이 1995년에는 71.2%에 달했다. 또한 3세대 이상 동거세대는 1965년에는 28.2%를 차지하였지만 1995년에는 18.4%로 감소하였다(佐久市志編纂委員会 2003).

구들은 “마나베 부인의 친구들”이라는 그룹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실상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마나베 부인의 친구들”로 초대 받은 사람들은 손님이라기보다는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동원된 조력자들이었다. 이들은 결혼식 버스를 타고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옮겨주거나 마나베씨의 의상을 챙겨주는 등의 일을 맡아 주었다. 그렇지만, 마나베씨의 아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따로 전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마나베씨는 이는 “자기와 친구들과의 문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나베씨와 수십 년간 친교를 유지해온 사치코씨(여, 72세)의 남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나베씨는 사치코씨를 위해 제단을 장식할 화환 등을 주문하며, 장례식이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했지만, 정작 가족들이 모여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장례식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다음에야 마나베씨는 사치코씨 집을 찾아가 뒷정리를 도와줄 뿐이었다. 연구자 역시 사치코씨 남편에게 생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부조를 하고 싶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묻자, 마나베씨는 연구자가 많은 돈을 내게 되면, 되값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치코씨 가족이 불편해할 것이라며 하지 않아도 좋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해주었다. 실제로, 다른 노인들 역시 초상을 치르게 돼도 부조를 아예 받기를 거절하거나 죽더라도 따로 연락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고인이 생전에 맺어왔던 친분관계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인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도저히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라도 가게 되면, 그대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차 마시는 자리에서 교환되는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장례식이 일종의 지역행사처럼 열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가족들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집들이 많아져서 누가 언제 죽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너무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가 가족에게 소식을 전해듣기도 하고, 사망 이후에 가족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 뒤늦게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혹은 지역신문의 부고란을 통해 소식을 접하거나, 차 마시는 자리를 통해 친구들 및 지인의 죽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음의 하나자토씨(여, 85세) 사례는 노인들의 상호돌봄관계가 어떻게 종결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례 1>

처음에 혼자가 되었을 때는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바람 부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곤 했지요. 누가 왔나 하고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혼자 사는 게 즐겁게 됐지요. 혼자 살 때는 친구들도 놀러 오기 편하니까 자주 놀러 왔고, 저도 많이 놀러 갔죠. 늘 다섯 명이 자주 어울렸지요. 운전을 할 줄 아는 친구가 있어 맛있는 음식점도 같이 가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암으로 죽고, 한 명은 폐암으로 죽었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월에 위궤양이 생겨 수술을 한다고 당분간 못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궤양이면 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수술까지 하나?’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계속 안 나와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맛있는 카스텔라를 사서 문병을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받아서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텼구나’라고 생각하며 위안했지요.

하나자토씨는 2남 1녀를 두었는데,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지병이 있는 남편과 단둘이 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병구완을 하느라 사실상 친구들을 만날 시간조차도 없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그녀는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들 역시 하나 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고, 한 친구의 경우에는 소식을 받지 못해 장례식에조차 가보질 못했다.

하지만, 뒤늦게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자토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했다. 물론, 친구가 죽기 전에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중이라도 따로 부조를 내지는 않았고, 장례식장에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에 서운해 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죽더라도 관계는 남아 다음 세대로 이어지던 시절은 이미 지났음을, 사람이 죽으면 관계도 소멸되길 고인들 역시 바란다는 사실을 노인들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관계도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노인들은 되도록이면 큰 상점이 아닌 소규모 상인들의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상점들이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노인들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었다(〈사례 2〉 참고).

<사례 2>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동식 슈퍼가 있었어요. 그것만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뒀어요. 우리 세대는 자동차 운전 같은 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어디 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며느리가 필요한 걸 사가지고 오니까 그냥 쓰긴 하지만, 내가 직접 고를 수 없으니까 그게 힘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노망까지 들어가지고, 나 스스로를 보며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참 얼마나 한심한지. 이렇게 노망이나 들어가지고. 나이는 먹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으니까 나이를 먹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냥 (며느리가) 주는 대로 쓰고, 차려주는 대로 먹어요. 나이가 드니까 많이 먹지도 못해요.

노인들의 입장에서 가게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십 년을 걸쳐 맺어왔던 상인과의 관계도, 물건을 고르며 느끼던 즐거움도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사례 2>에서 나타나듯이 평소 거래하던 상점이 사라지면서 데노씨(여, 90세)는 사고 싶은 물건을 직접 고르는 재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사회적 관계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소규모 상점이 도산함에 따라 노인들은 생존의 위협 역시 느끼고 있었다. 특히, 주변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집 주변 상점들이 도산함에 따라 “쇼핑약자(買い物弱者)”로 전락하고 있었다.⁷⁾ 다음의 노다씨

7)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2010)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기준으로 일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60세 이상 노인이 전국 600만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림수산업 정책연구소(農林水産省 政策研究所 2012)에 따르면, 생선 및 식료품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500미터 이상이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략

사례는 혼자 사는 노인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얼마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본래 도쿄 출신인 노다씨(남, 73세)는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사쿠지역에 약 36년 전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고 했다. 인터뷰 당시 노다씨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혼한 부인을 비롯하여 가족들(아들 2, 딸 1)은 모두 도쿄(東京) 및 요코하마(横浜) 근방에서 살고 있었다. 노다씨는 8년 전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폐에 이상이 발견되어 폐의 1/3을 절단했다. 이에 노다씨는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다.

노다씨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는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전기자전거를 완벽하게 충전해야만 다녀올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가 방전이라도 되면 장을 봐온 물건들의 무게와 전기자전거 자체의 무게가 더해져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폐도 사실상 쓸 수 없게 되면서 노다씨는 전기자전거보다 더욱 무거운 초록색 산소통을 끼고 살아야 했다.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노다씨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나베씨(여, 70세)는 노다씨를 위해 가끔 대신 장을 봐주거나 노다씨를 차에 태워 함께 데려갔다. 또한,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노다씨에게 조금씩 나눠주기도 했다. 장을 보러 가면 노다씨는 신선한 야채나 고기보다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바나나, 칼로리 밸런스, 코코아가루, 코나밀크(粉ミルク: 분말우유) 등을 샀다. 노다씨는 한 끼 식사를 바나나 한 쪽 또는 칼로리 밸런스 반 조각 등으로 때웠다. 연구자가 걱정을 하면, “자신의 식사량은 자신이 아니까”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된 지 3년 즈음, 노다씨는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임종

900만 명이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350만 명 존재한다. 나가노현 상공노동부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자, 집으로부터 상점이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자, 도보 및 자전거로 물건을 사러 갈 수 없는 자,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자를 “쇼핑약자” 혹은 “쇼핑난민”으로 정의하였다. 나가노현 내에는 쇼핑약자가 약 5만 2천 명에서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信州毎日新聞 2011년 1월 8일).

직전에 노다씨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웃인 마나베씨였다. 마나베씨는 상태가 좋지 않은 노다씨를 한밤중에 병원으로 데려갔고,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노다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웃 및 상인들과 맺고 있는 상호돌봄관계는 사쿠지역 노인들의 장소경험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노인들은 이웃들과 맺고 있는 상호돌봄관계가 자신들 세대에서 종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배려하고 있었다. 또한, 상인들과 맺어왔던 관계도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는 일부 노인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처럼, 사쿠지역 노인들에게 장소상실의 경험은 상실감 이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사쿠지역 노인들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식들이 집 근처 시설에 자신을 넣어줘서 생각날 때 한 번씩이라도 보러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일부 노인들은 미리부터 시설 대기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두기도 했다. 다음 절에서는 이처럼 장소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시설이 아닌 그들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AIP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일본 정부 및 민간단체의 실천들이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4. 정책담론 속에서의 장소와 제3의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

1) 정책담론 속에서의 장소와 한계

일본의 정책이나 학계 담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장소는 통상 “지역”이란 말로 대체 가능할 것이다. AIP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들에서 문자

그대로 “Aging in Place(エイジング・イン・プレイス)”라는 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거주(地域居住)” 혹은 “지역재주(地域在住)”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阿部剛·大沼剛 2014; 飯島勝矢 2015). 또한, AIP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 및 소규모다기능형 시설(小規模多機能施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도 실시되고 있다(永田千鶴·松本佳代 2010; 永田千鶴·北村育子 2014). 즉, 일본정부가 2005년 개호보험제도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地域密着型サービス)”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AIP 이념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厚生労働省 2005).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일본정부는 시종일관 “지역”의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개호보험제도 하에서는 시정촌(市町村)이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2005년 일본정부는 개호보험제도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면서 아예 “지역”이라는 글자를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즉,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일상생활 권역권 30분 이내의 거리에 24시간 365일 안전하고,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으로써 시설이나 병원 등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익숙해진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飯島勝矢 2015).

하지만 일본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립 단위는 중학교구(인구 2만 명) 단위이다(조아라 2013: 712). 인구가 10만 명인 사쿠지역의 경우 현재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총 5개에 불과했고 보건사 수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사들의 업무 역시 나이든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에서 주로 수치화된 노인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사례 3>

오늘 열린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회의 회의에서는 노인들을 상담한 내역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를 주로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주된 쟁점은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방문한 노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방문하게 됐는가를 체크하는 방식이었다. 사가미 지구의 경우 가족의 소개로 방문했다고 체크한 경우가 한 케이스 밖에 없었는데 중부지구의 경우는 759케이스나 되었다. 사가미 지구 담당자는 약간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걸 어떻게 입력하는 게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는 상담 횟수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노인들이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온 순간부터 1회로 인정해야 할 지,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1회로 봐야 할 지 보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입력체계에 대한 각종 문의와 항의가 폭주하는 것을 보며 당황해 하던 계장은 “자신만의 입력 방법이랄까? 이런 걸 적어 오시면 참고해서 입력방법을 통일하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2010년 6월 14일 연구일기 중).

연구자는 지역사회 포괄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구의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사들이 시청에 와서 매달 한 번씩 지금까지의 업무 보고 및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토론하는 운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실제 노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건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회의는 연구자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례 3>에서 보듯이, 보건사들은 노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역할보다는 수치화된 혹은 변수화된 노인들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게다가 중앙정부는 고령인구에 소요되는 자원의 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들은 대부분 노인들의 기능상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양, 노인인구대비 필요한 시설의 수와 같은 표준화된 수치(number)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다(<사례 4> 참고).

<사례 4>

2008년 기준 사쿠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총 병상 수는 959석인 것으로 파악됐

다. 그런데 2014년에는 요개호 2~5등급에 해당하는 사쿠시의 노인 수가 2,998명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때문에, ‘요개호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요개호 인정자 수의 37%’만큼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국가의 권고를 지키기 위해서는 1,109개 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따라서 시에서는 나카고미(中込)-노자와(野沢) 지역에 병상 100개 정도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2014년까지 병상 수를 1,108개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치’에 의존한 계획은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청에서는 수치상 한 개도 없다는 이유로 사쿠시 내에서도 비교적 변화가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단순히 한 지구에 한 개의 시설을 건립한다는 논리는 상이한 지역적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사쿠시 내에서도 이즈미구(泉区)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7%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사카구(馬坂区)는 93.3%에 달했다. 게다가 백화점, 신칸센(新幹線: 고속철도) 등이 들어선 시내 중심가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됐지만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주변부 지역에는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가 충분치 않았다.

또한, 사쿠시청에서는 총 병상 수에 근거하여 시설의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호노인복지시설 역시 종류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유료시설들은 담당 직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 돌아다닐 만큼 공급이 많았다. 유료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특별노인요양홈(特別老人療養ホーム)에 입소한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이용자의 자기부담금이 많아 상대적으로 이윤을 남기기도 좋았다. 이런 이유로 민간에서는 유료시설 증설을 선호했다. 반면, 사쿠지역에서 노인 및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특별노인요양홈이었다. 3개월 이상 머무르기 어려운 노인보전시설과 달리 기간 제한이 없는 거주시설인 특별노인요양홈은 노인을 돌보기 힘들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었다. 특히, 요개호 2등급 내지 3등급을 받은 치매노인들의 경우 비록 등급은 높지

않지만 상시 보호가 필요해서 특별노인요양홈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이전처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사쿠시에서는 시설 수를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특별노인요양홈의 증설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 결과, 사쿠시만 하더라도 736명(2010년 3월말 기준)의 노인들이 특별노인요양홈에 입소하길 기다리고 있었다.⁸⁾

요약하면, 일본정부는 지역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AIP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상정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고령인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통치단위로 장소를 상정하고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조차 비용상의 이유로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지역에 머물 것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 제3의 장소를 제시하려는 시도와 한계

일본정부 역시 정책에서 규정하는 장소가 지나치게 넓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영리단체들(NPO: Non-Profit Organization)을 활성화시키는 방침을 택하고 있었고(厚生労働省 2011),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에 힘입어 AIP를 실현하려는 사례들에 대한 연구도 실시되기 시작했다(Ohwa 2010; 大橋寿美子·加藤仁美 2014). 사쿠지역에서는 나가노현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의 하위 조직인 동신(東信)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이 이러한 역할을

8) 나가노현 건강장수과에서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현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며 특별노인요양홈에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2010년 3월 말 기준, 5,131명으로 전년 대비 338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개호 4등급 및 5등급을 받은 사람이 전체 40%를 점하고 있었다(信州毎日新聞 2010년 7월 27일).

수행하고 있었다.

동신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사쿠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정부 주도의 고령자복지정책의 한계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곤 했다. 그래서 개호보험정책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정책이 본래 목표하는 바인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조합에서는 일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는 “뇌를 활성화하는 즐거운 교실(脳いきいきサロン)”을 열었다. “뇌를 활성화하는 즐거운 교실”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회 참가할 경우 500엔의 수업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정부 제공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이 주체가 되어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업내용 역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인지증, 동맥경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복지, 의료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수업에 참가했던 참여자들이 수업을 통해 유대를 쌓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노인들이 가족 및 이웃들과 만들었던 장소나 정부가 제시하는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했다.

고령자 생활협동조합뿐 아니라 사쿠지역에서는 고령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례로 은퇴 이후 사쿠지역에 정착한 요다씨(남, 70대)는 스스로 “라이프 서포트 유(Life Support You)”라는 지역 소모임을 2006년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요다씨는 지역주민들 가운데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수리, 정원 나무의 손질, 청소, 요리, 쇼핑, 도장, 운전, 손자 돌보기, 쓰레기 버리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있는지 파악

하는 한편, 도움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모집하여 양자를 연결해 주고 있었다.

이 같은 요다씨의 실천은 개호보험제도와 같은 공적인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는 공적인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다씨는 “작은 지역단위의 복지 커뮤니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정작 이러한 사업들이 겨냥하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뇌를 활성화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노인들은 아직까지는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적극적인 노인들이 많았다. 사실 이러한 노인들은 애당초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사실상 목표로 삼고 있는 “고립된 노인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모임에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노인들이 기존부터 살아왔던 장소보다는 다소 넓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장소보다는 다소 좁은 형태인 “지역단위의 복지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요다씨와 같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 역시 같은 종류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2015년 요다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자신은 라이프 서포트 유와 같은 소모임도 운영하고, 지역 내 구장 등과 같은 직책을 맡아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 자신 외에는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시키기 어려웠다고 그는 토로했다. 이에 요다씨는 자원봉사활동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역의 노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장소를 제시하려는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지역주민들에게 여전히 낯설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러한 모임을 통해 맺어지게 된 인간관계는 노인들이 기존에 맺어왔던 인간관계의 손실을 메우거나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며 지내다가, 국가의 ‘인정’을 받아 시설 혹은 병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5. 나가며: 대안적 삶의 공간과 퇴적공간의 기로에서

AIP 이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경제적 고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에 실시된 연구들은 도시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에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춰져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한경혜·김주연 2005; 윤성은 2011). 실제로, 사쿠지역 노인들에게 있어 장소경험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집 혹은 지역사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오래된 물품들, 기억, 의무가 존재하는 공간이자, 오래된 친구, 이웃, 그리고 상인들과의 친교를 가능케 하여 자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천이기도 했다. 즉, 지역사회가 가진 이 같은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게 됨에 따라 AIP 이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

그런데 노인들의 장소를 구성하는 가치와 인간관계들은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조상의 혼령을 돌보는 관습이 자식들에게로까지 이어지리라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친구들과의 상호돌봄관계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관계를 소멸시키고 있었다.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던 상인들의 상점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노인들은 생존의 위협 역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노인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면 집 근처 시설이라도 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노인들이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담론에서 제시하는 장소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넓고 성글었다. 제3의 장소를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제시하는 장소 역시 아직까지는 노인들의 장소를 대체하거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만큼 촘촘하지도, 견고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장소를 상실한 노인들에게 시설이나 병원과 같은 대안 역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노인들은 시설이나 병원에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고립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노인들이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며, 기존의 인간관계를 스스로 정리하면서까지 그들의 장소에 남아있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애착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

장소상실이라는 개념에 주목한 렐프(2005)의 경우, 산업화 및 상업적 개발과정이라는 거시적 맥락이 장소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이 같은 렐프의 통찰을 적용해 보면,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장소상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망이 붕괴하고 있는, 이른바 “지방소멸”(마스다 히로야 2015)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었다. 즉,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곳이 없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조차 힘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대안이 없으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 남아 있으라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AIP가 적용된다면 이는 사실상 노인들을 지역에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노인들의 장소감각은 장소에 정박되어 있는 배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개입을 시도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AIP가 실제 노인들이 당면한 현실에서 교조적이고 정태적인 이념에 불과한 것(Keeling 1999: 110)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집과 지역사회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방식이 지역사회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재배치하려는 구조적 힘과 어떻게 맞물려 구성되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정진웅 2014: 467)을 통해, 장소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역동성과 정치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노인들의 변화하는 장소감각에 상응하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6년 4월 4일, 논문심사일: 2016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10일

참고문헌

김영주

2006 “Aging in Place 활성화를 위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실태 및 요구조사,” 『생활과학논집』 23: 13-35.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희경

2015 ““핀핀코로리(ぴんぴんころり)의 비밀”: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에서의 생명 정치와 노년의 자기윤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렐프, 에드워드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서울: 논형.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 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김정환 역, 서울: 와이즈베리.

야나기타 구니오

2016 『선조이야기: 일본인의 조상숭배』, 김용의 역, 전남대학교 출판부.

윤성은

2011 “농촌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경험의 의미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박사학위논문.

정용문

2013 “호주의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aging-in-place)’ 지원 정책이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노년학』 33(4): 847-863.

정진웅

- 2000 “노년의 정체성 지속을 위한 한 은퇴촌 주민들의 노력,” 『한국문화인류학』 33(2): 301-329.
- 2014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년 연구에 관한 제언,” 『보건사회연구』 34(3): 452-476.

정현목

-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

조아라

-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48(5): 709-727.

한경혜 · 김주현

- 2005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1): 73-88.

阿部勉 · 大沼剛

- 2014 “地域在住高齢者における生活機能の捉え方:『Aging in Place』を見据えた高齢者に対する予防戦略,臨床実践講座,” 『理学療法学』 41(6): 390-396.

飯島勝矢

- 2012 “何が求められているのか?千葉県柏市健康長寿都市計画から:『Aging in Place』を目指して,” 『日本老年医学会雑誌』 49(6): 693-696.
- 2015 “在宅医療の立場から: 安心して暮らせるコミュニティづくり—,” 『学術の動向』 20(1): 60-64.

井出政芳 · 山本玲子 · 宇野智江 · 鈴木祥子 · 伊藤優子 · 早川富博 · 宮治眞

- 2014 “中山間地に住まう高齢者のトポフィリア: 場所愛についての分析,” 『日本農村医学会雑誌』 62(5): 726-744.

大橋寿美子 · 加藤仁美

- 2014 “郊外住宅地における地域住民と大学生による高齢者の居場所の形成-伊勢原市愛甲原住宅での活動初期の試みから,” 『湘北紀要』 35(10): 41-51.

大淵修一

- 2014 “介護予防の街づくり: 『Aging in Place』を見据えた高齢者に対する予防戦略,臨床実践講座,” 『理学療法学』 1(7): 462-468.

越田明子

- 2011 “居所型生活支援の構造と介護領域の拡大: 住宅・社会福祉・介護保険施策の関係から,” 『長野大学紀要』 33(1): 29-38.

鈴木幾多郎

2014 “『Aging in Place』社会と地域商業— 超高齢社会のデザイン(1),” 『桃山学院大学経済経営論集』 55(3): 249-273.

永田千鶴・松本佳代

2010 “エイジング・イン・プレイスを果たす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の現状と課題,” 『熊本大学医学部保健学紀要』 6: 43-62.

永田千鶴・北村育子

2014 “地域包括ケア体制下でエイジング・イン・プレイスを果たす地域密着型サービスの機能と課題,” 『日本地域看護学会誌』 17(1): 23-31.

田原裕子・神谷浩夫

2002 “高齢者の場所への愛着と内側性,” 『人文地理』 54(3): 209-230.

Appadurai, Arjun

1988 “Introduction: Place and Voice in Anthropological Theory,” *Cultural Anthropology* 3(1): 16-20.

Bacsu, Juanita, Bonnie Jeffery, Sylvia Abonyi, Shanthi Johnson, Nuelle Novik, Diane Martz, and Sarah Oosman

2014 “Healthy Aging in Place: Perceptions of Rural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40(5): 327-337.

Chappell, Neena L., Betty Haven Dliitt, Marcus J. Hollander, Jo Ann Miller, and Carol McWilliam

2004 “Comparative Costs of Home Care and Residential Care,” *The Gerontologist* 44(3): 389-400.

Cutchin, Malcolm P.

2003 “The Process of Mediated Aging-in-Place: A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Based Model,”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Medicine* 57: 1077-1090.

Escobar, Arturo

2001 “Culture Sits in Places: Reflections on Globalism and Subaltern Strategies of Localization,” *Political Geography* 20(2): 139-174.

Feld, Steven and Keith H. Basso(eds.)

1996 *Senses of Place*,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Frank, Jacquelyn Beth

2002 *The Paradox of Aging in Place in Assisted Living*, London: Bergin & Garvey.

Geertz, Clifford

1996 "Afterword," in Steven Feld and Keith H. Basso, eds., *Senses of Place*,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pp. 259-262.

Gregory, Derek, Ron Johnston, Geraldine Pratt, Michael Watts, and Sarah Whatmore(eds.)

2011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Malden, MA an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1992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7(1): 6-23.

Hillcoat-Nalletamby, Sarah and Jim Ogg

2014 "Moving beyond 'Ageing in Place': Older People's Dislikes about Their Home and Neighbourhood Environments as a Motive for Wishing to Move," *Ageing and Society* 34(10): 1771-1796.

Iecovich, Esther

2014 "Aging in Place: From Theory to Practice," *Anthropological Notebooks* 20(1): 21-33.

Ingold, Tim

1993 "The Temporality of the Landscape," *World Archaeology* 25(2): 152-174.

Joseph, Alun E. and A. I. (Lex) Chalmers

1995 "Growing Old in Place: a View from Rural New Zealand," *Health and Place* 1(2): 79-90.

Kaup, Migette

2009 "Life-Span Housing for Aging in Place: Addressing the Home as an Integrated Part of the Solution to Long-Term Care in America," *Seniors Housing and Care Journal* 17(1): 101-113.

Keeling, Sally

1999 "Ageing in (a New Zealand) Place: Ethnography, Policy and Practice,"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13: 95-114.

Löfqvist, Charlotte, Marianne Granbom, Ines Himmelsbach, Susanne Iwarsson, Frank Oswald, and Maria Haak

2013 "Voices on Relocation and Aging in Place in Very Old Age: A Complex and Ambivalent Matter," *The Gerontologist* 53(6): 919-927.

- McCunn, Lindsay and Robert Gifford
 2014 "Accessibility and Aging in Place in Subsidized Housing," *Seniors Housing and Care Journal* 22(1): 18-29.
- Means, Robin
 2007 "Safe as Houses? Ageing in Place and Vulnerable Older People in the UK,"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1): 65-85.
- Minkler, Meredith
 1996 "Critical Perspectives on Aging: New Challenges for Gerontology," *Aging and Society* 16: 467-487.
- Ohwa, Mie
 2010 "Role of NPOs to Promote "Aging in Place" Enhanc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l Support System in the Neighborhood," *Kwansei Gakuin University Social Sciences Review* 15: 1-12.
- Rodman, Margaret C.
 1992 "Empowering Place: Multilocality and Multivocality," *American Anthropologist* 94(3): 640-656.
- Rubinstein, Robert I. and Patricia A. Parmelee
 1992 "Attachment to Place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Life Course by the Elderly," in Irwin Altman and Setha M. Low, eds.,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num Press, pp. 139-163.
- Scharlach, Andrew, Carrie Graham, and Amanda Lehning
 2011 "The "Village" Model: A Consumer-Driven Approach for Aging in Place," *The Gerontologist* 52(3): 418-427.
- Singelenberg, Jeroen, Holger Stolarz, and Mary McCall
 2014 "Integrated Service Areas: An Innovative Approach to Housing, Services and Supports for Older Persons Ageing in Place,"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 69-73.
- Smith, Robert J.
 1999 "The Living and the Dead in Japanese Popular Religion," in Susan O. Long, ed., *Lives in Motion: Composing Circles of Self and Community in Japa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p. 255-281.
- Wiles, Janine L., Annette Leibing, Nancy Guberman, Jeanne Reeve, and Ruth E.S. Allen
 2011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자료>

經濟産業省

- 2010 『地域生活インフラを支える流通のあり方研究かい報告—地域社会とともに生きる流通』.

厚生労働省

- 2005 『介護保険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厚生労働省 介護制度改革本部. <http://www.mhlw.go.jp/topics/kaigo/osirase/tp040922-1.html>
- 2011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 (2016년 3월 28일 접속)

佐久市

- 2014 <https://www.city.saku.nagano.jp/shisei/profile/tokei/tokeisho/index.html> (2016년 4월 2일 접속)

佐久市志編纂委員会

- 2003 『佐久市志-歴史編5(現代編)上』.

総務省

- 2013 平成25年 住宅・土地統計調査結果による住宅に関する主な指標(確報値). http://www.stat.go.jp/data/jyutaku/topics/pdf/topics86_2.pdf (2016년 1월 13일 접속)

長野県

- 2013 住宅統計. http://www3.pref.nagano.lg.jp/tokei/1_jutaku/jutakutop.htm (2016년 1월 13일 접속)

農林水産 政策研究所

- 2012 『食料品アクセス問題の現状と対応方法—いわゆるフードデザート問題をめぐって』.
- 『信州毎日新聞』, “지사선거 당선인에게 바란다: 개호시설부족(知事になるあなたへ: 介護施設不足),” 2010년 7월 27일자.
- 『信州毎日新聞』, “어느새 쇼핑약자?(いつの間にか 買い物弱者? その1),” 2011년 1월 8일자.

〈Key concepts〉: aging in place, sense of place, placelessness, community, the old, aging, Japan

Place and Placelessness of Old Age: The Politics of Aging in Place in Rural Japan

Kim, Heekyoung*

In this study, I investigate how the concept of AIP(Aging in Place) has been applied in super-aging Japan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lder people dwelling in rural community. In the academic and governmental discourses, place has been described as static and constant, and the elder's attachment to their place has been generally overemphasized. However, the elderly's sense of place has been changed through their interaction with various agents including neighb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dynamics of place experience to realize the philosophy of AIP.

* Post-Doctoral Researcher, BK21Plus Team,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